

무소불위 권력 나누기...檢 ‘조직적 저항’ 돌파가 관건

非검찰 민정수석 임명·검찰총장 사퇴...검찰개혁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개혁 소장과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기용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옹퇴를 선언함에 따라 새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조인이 아닌 조 교수를 민정수석에 발탁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청와대 측은 조 민정수석 인사와 관련,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정부 때도 판사 출신으로 당시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강금실 변호사를 과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면서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1년 내에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은 이날 신임 수석비서관 인사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남짓한 기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방법과 관련, 조 수석은 참여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등 조국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 1년내 속전속결 추진될 듯

정부 때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같은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만큼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수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신설될 공수처와 경찰 등에 나눠줌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도 이날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검정중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드러낸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조 수석은 또 그동안 재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을 중심으로 한 검찰 권력의 분산·견제와 균형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검찰의 반발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검찰개혁 과제인 공수처 신설을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거라고 믿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김 총장 사퇴로 새 정부의 검찰개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 차례로 나설 예정이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과 더불어 어떤 인물들이 발탁될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신임 국무조정실장·청와대 수석 프로필

재정·예산·정책 조정 업무 정통한 경제관료

홍남기 국조실장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남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재정·예산 업무에 정통한 경제관료다.

정책 조정 업무에도 경험이 많아 경제 활성화, 일자리 마련, 복지 공약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미래부 근무 경험을 살려 4차 산



업혁명과 신성장 동력을 이끌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능력을 발휘하리라는 기대도 모은다. ▲강원 춘천(57세) ▲춘천고·한양대 경제학과 ▲행시 29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정책실 정책보좌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진보 소장파 법학자...민주당 혁신위원 활동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로 하면서 후학양성과 사회참여를 병행하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인사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의 더

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 ▲부산(52세) ▲해광고·서울대 법대·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단체 활동·교수 지낸 여성정책 전문가

조현옥 인사수석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내정된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과 학대학원 초빙교수에게는 ‘여성 1호 인사수석’ 타이틀이 붙는다.

국책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를 거친 여성정책전문가인데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정책을 다룬 경험이 있

어 전문성을 토대로 여성인재에 대한 과감한 발탁의지를 보인 인사로 평가된다. 조 수석이 낙점된 데에는 여성인재를 중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것임을 예고한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61세)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독일 루프레히트 카를대 정치학 박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신문 기자·포털 두루 섭렵한 미디어 전문가

윤영찬 홍보수석

문재인 정부 초대 홍보수석에 임명된 윤영찬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은 신문과 포털을 두루 섭렵한 ‘미디어 전문가’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 노태우 비자금 폭로사건을 특종 취재해 1995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당시 민주당 이부영 의원으로부터 “박계동 의원이 뭐가 갖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심야에 박 의원을 만나 ‘4000억원 비자금’ 폭로를 이끌어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는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선후배로 같이 활동했던 인연이 있다. 신문기자 출신이면서도 뉴 미디어 영역에서도 빠른 판단력과 신선한 감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53세) ▲서울대 지리학과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노조위원장 ▲네이버 부사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SNS본부장

“서민들 사랑 받는 총리 되겠다”

이낙연 전남지사 퇴임...국회 인준 무난할 듯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퇴임식을 갖고 15일자로 전남지사직을 사직한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의 사랑을 받는 총리, 늘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과거 전남지사 시절을 떠올렸는지 감회에 젖어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발언을 멈추기도 했다.

전남지사로 일한 2년 11개월에 대해 이 지사는 전남의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확인한 행복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 집무실에서 전남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부터 축하 꽃바구니를 받고 도청 간부들과 평소대로 아침 회의를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식사나 술을 마신 적도 없고 차를 마신 것도 3번을 넘지 않았는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관찰하게 돼 있으며 그럴 수 있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사업과 관련해서는 호남에서도 소외된 전북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호남의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 총리”라면서 “다만 전남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정도를 살펴보고, 호남에서도 소외된 전북과 관련해서 미진한 전주혁신도시, 새만금 근산조선소 등 현안사업을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여야 간 정치적 이유로 발목 잡히는 상황이 생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여소야대’ 정국인긴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의 야당들이 “확실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데다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둔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데 큰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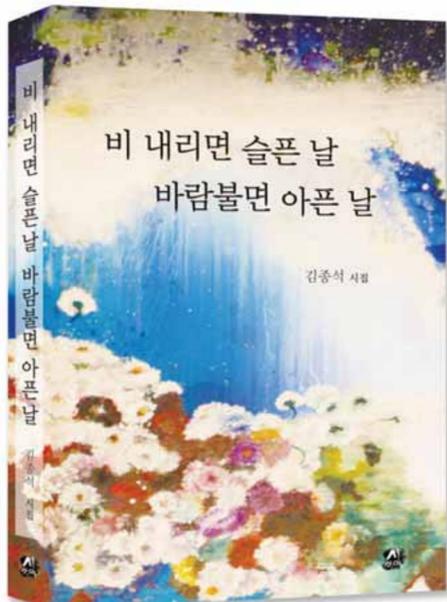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같은 뿌리를 둔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120석과 국민의당 40석을 합치면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이 확보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무안 남악신도시 전남도청에서 전남지사 퇴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 내리면 슬픈 날, 바람불면 아픈 날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슬픔, 고통, 죽음, 이별, 후회, 반성의 시편들과 함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양장본 · 198쪽 · 값 20,000원 시산책 02-764-8722

장미의 외출중에서

김종석 시인의 시 속에서 내 짧은 날의 방향과 열정을 만난다. 시인은 지금도 ‘장미의 외출’을 꿈꾸며, ‘눈멀고 귀 멀어도, 나 거기서 죽겠’ (‘사랑했었네’)라는 순수한 영혼을 만나고 있다. 또한 ‘밤이면 내 가슴에 별’ (‘별들은 내 발걸음 함께 하며’)을 꽃피우며 ‘천상에 들려오는 노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 (‘별이 비워둔 곳을 향해’)하는 어린 천사를 만난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피어있는’ (‘사막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 장미꽃 한송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왔던’ (‘바다가 달려온다’) ‘우리네 젊었던 옛 시절’ (‘나무’)이 스르린처럼 지나간다. 시의 행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움을, 두근거리는 설렘을 되찾게 해준 김종석 시인을 축하한다.

- 이정호(영화감독,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조국의 산천을 떠나 먼먼 이국땅에서 모국어로 시를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시심(詩心)의 바탕을 유지하면서 인생과 사랑과 대자연의 풍경을 자기화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본연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기도 하다. 김종석 시인의 이번 시집은 파란만장했던 지난 한 생을 지나오는 동안 누구보다도 ‘가슴 속 통증’의 세월을 보내었기에, ‘평생 한 여인만을 사랑’ 하며 살았기에, 인생이란 이름의 ‘슬픈 사랑’을 시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는 ‘영원히 바람이고 싶어했던 영혼’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도 ‘밤마다 뒤편에 울부짖던 대나무숲’ 그늘에서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 이승철(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김종석 시인

e-mail: kimjongsuk2500@gmail.com

- 약력
- 1977년 캐나다 이민
 - 캐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 입성(시 부문)
 - 캐나다한민문인협회 회원
 - 2014년 계간 ‘시현상’ 여름호로 등단
 -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원

- 시집
- 2014년 『나는 내 소리를 잃었네』 발간
 - 2016년 『장미의 외출』 발간

